

# 메마른 감성을 깨워줄 삼색전시



출다고 밖에 나가지 않고 온종일 방 안에서 지내다 보면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출타라도 야외 나들이를 하는 것이 건강은 물론 감성을 자극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준다.

겨울을 맞이해 곳곳에서 해외 유명 화가의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어, 겨울가지처럼 메마른 감성을 깨우기에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미술 감상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미적 감성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물론이며 잠자고 있던 창의력까지 키워줄 수 있는 기회다.

먼저 아이들의 겨울 방학을 맞이해 꼭 보아야 할 전시가 있다. 서울 시립미술관에서 3월 27일까지 전시되는 색채의 마술사 <마르크 샤갈전>이다. 샤갈의 작품에서는 잃어버린 동심의 세계를 엿볼 수 있다.

샤갈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가 느껴지는 대표적인 작품을 꼽으라고 한다면 '도시 위에서'를 들 수 있다. 이 작품은 사랑의 기쁨을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샤갈은 파리에서 활동하고 있던 중 약혼녀 벨라 로젠펠트와 결혼하기 위해 고향으로 돌아온 샤갈이 벨라와의 행복을 화폭에 담았다.

샤갈이 벨라를 안고 하늘을 날고 있고 그 아래에는 샤갈의 고향 마을 비테프스크의 전경이 펼쳐져 있다. 나무 울타리 뒤로 펼쳐져 있는 마을은 목재로 지어진 집들 사이로 러시아 정교회 성당이 보인다. 비테프스크는 샤갈의 예술 세계에 영감을 주었던 소재이기도 하다. 샤갈은 파리에서 활동하면서도 끊임없이 고향을 그리워했다.

이 작품은 환희에 찬 샤갈의 모습을 자유롭게 하늘에 떠 있는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는 화가로 활동하는 내내 비행하는 모습을 많은 그림의 소재로 삼았다. 두 사람이 함께 하늘을 비행하는 모습은 샤갈과 벨라가 삶의 동반자라는 것을 나타내며 샤갈의 예술적 영감을 주었던 두 가지 주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마르크 샤갈(1887~1985)은 자신의 삶, 즉 가족과 러시아 농가의 생활, 고국에 대한 향수, 성서 등의 주제를 몽환적이고 시적으로 표현했다.

색채의 마술사 샤갈의 전시에서 그의 삶을 엿보았다면 20세기 전반 창작의 자유로움을 마음껏 펼칠 수 있었던 파리에서 활동했던 화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는 곳이 덕수



궁 미술관에서 3월 1일까지 전시하고 있는 <피카소와 모던아트 : 열정과 고독>이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후반까지 서양 미술사의 흐름을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는 이번 전시는 19세기 파리에서 활동했던 피카소, 자코메티, 뭉크, 칸딘스키 등 39명의 화가들의 회화, 조각, 드로잉 등 121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다. 당시 파리에서 활동했던 예술가들을 가리켜 '에콜 드 파리'라고 불렀는데 그들은 미술을 시처럼, 시를 삶처럼 이상화하는 것을 최고로 여겼다.

<피카소와 모던아트 : 열정과 고독> 전시회에서 눈을 사로잡는 것은 청색시대부터 초현실주의에 이르기까지 피카

소의 다양한 예술 세계를 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피카소는 일기를 쓰듯 자신의 감정을 그림으로 풀어내고 있는데, 전시하고 있는 작품 중에 복잡한 심정을 들어내고 있는 작품이 '지중해 풍경'이다. 바다를 등지고 있는 붉은색 지중해 빌라는 정원으로 이어지는 계단과 바다를 향하는 문, 테라스, 언덕 중간에 있는 분수를 비롯해 건물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복잡한 빌라 한쪽으로는 사람들이 요트를 타고 바다를 향해하고 있다.

이 작품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는 빌라의 건물 구조는 피카소가 겪고 있는 감정을 나타내며 요트를 타고 향해하는 사람

그림을 느낀 그대로, 편안하게 감상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훨씬 흥미로울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미술관 나들이로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면 어떨까.

라 할 수 있다.

전시 작품 중에 프랑스 대혁명 당시의 상황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 찰스 베나체크의 '1793년 1월 20일,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루이 16세'다. 이 작품은 루이 16세의 사형집행 전날 밤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화면 중앙 붉은색 깃을 단 루이 16세가 고해 신부인 에지위스 신부를 바라보고 있고 정신을 잃은 마담 루이얌을 한 손으로 잡고 있다. 황제자 루이는 그의 무릎에 기대어 앉아 있다. 루이 16세 뒤에 서 있는 마리 앙투아네트 왕비는 왕을 지키고자 두 팔을 벌리고 있다. 왕비의 여동생 엘리자베스 공주는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기도를 드리고 있다. 화면 오른쪽 끝에는 루이 16세를 데려가기 위해 온 경찰이 가족들의 이별하는 루이 16세를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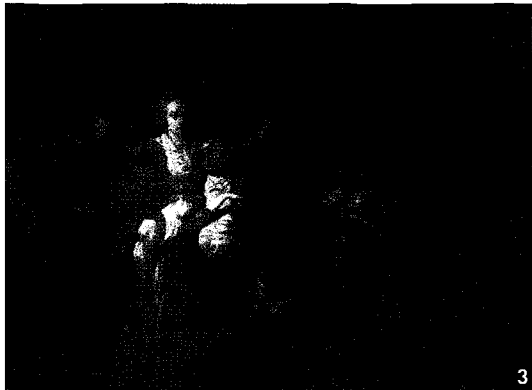
찰스 베나체크(1767~1794)는 이 작품에서 인물들의 자세를 통해 고통스러운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흔히 미술관 나들이는 미술을 잘 알고 이해하는 이들의 전유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림을 느낀 그대로, 편안하게 감상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훨씬 흥미로울 것이다. 얼마 남지 않은 겨울, 미술관 나들이로 마음의 양식을 쌓아보면 어떨까.†

1 <도시 위에서> 1917~1918년, 캔버스에 유채, 139×197, 모스크바 국립 트레티아코프 미술관 소장

2 <지중해 풍경> 1952년, 캔버스에 유채, 81×125, 비엔나 알베르티나 미술관 소장

3 <1793년 1월 20일, 가족들에게 작별을 고하는 루이 16세> 1793년, 캔버스에 유채, 41×52, 파리 국립 베르사이유 궁전 소장



은 현실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계를 갈망하고 있는 피카소의 욕망을 암시한다.

파블로 피카소(1881~1973)의 이 작품에 등장하는 거대한 빌라는 피카소가 연인 프랑수아 질로와 함께 살기 위해 장만한 '라 갈로아즈'이다. 여기서 질로는 아이를 낳았지만 두 사람은 결국 1953년 헤어진다. 이 작품은 두 사람이 헤어지기 전 갈등의 골이 깊었을 때 제작되었다.

미술관에서 화가의 삶과 생각 그리고 시대정신을 감상했다면 한가람 미술관에서 2011년 3월 6일까지 전시되고 있는 <베르사이유(루이 14세에서 마리 앙투아네트까지) 특별전>은 18세기 프랑스 역사와 귀족들의 생활을 엿볼 수 있는 전시